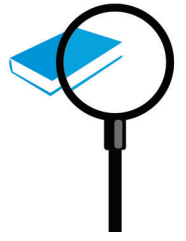


'오빠 부대' 원조 '오빠 남진'의 가수 인생 60년 이야기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오빠, 남진

온테이블

다음에서 말하는 이는 누구일까? 해방둥이로 태어나 60년대 데뷔했다. 70년대 전성기를 구가한 한국 가요계의 아이콘이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 '오빠 부대'를 몰고 다녔으며 지금도 전성기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눈치 빠른 독자라면 '오빠 부대' 원조격이라는 말에서 감을 잡았을 것이다. 그는 라이벌 나훈아와 함께 한 시대를 양분했던 슈퍼스타다. 그렇다. 가수 남진이다.

그는 '가슴 아프게', '남과 함께', '미워도 다시 한번', '동지', '빈 잔'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했다. 65년 데뷔해 올해로 60년이 됐지만 여전히 무대에 서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63컨벤션센터에서 60주년 디너쇼를 열었다.

우리나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대중음악 또한 식민지, 해방, 전쟁, 민주화, 산업화 등 격동의 현대사와 함께했다. 때로는 웃음으로, 때로는 눈물로 대중을 위로하며 지난한 시절을 건너왔다. 현대



사의 소용돌이 틈바구니에서 진화를 거듭해온 대중음악, 그리고 그 태풍의 눈에는 '가수 남진'이 있었다. 가수 인생 60년을 맞은 남진의 인생과 음악을 담은 책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오빠, 남진'은 남진이 들려주는 인연, 행운 등 다양한 인생 스토리를 담고 있다. 한번쯤 들었을 법도 하지만 잘 모르는 그의 이야기는 한국 대중음악사 100년을 관통한다. 집필에는 다큐영화 '남진, 오빠'를 제작한 콘텐츠그룹 온테이블이 참여했다. 남진이 '우리 대중음악의 고전'이자 대중음악사의 중요한 자료라는 인식에서 영화가 수록하지 못한 내용을 아우른다.

책은 크게 두 이야기로 집약돼 있다. 남진이라는 렌즈를 통해 본 한국 대중음악의 이야기이자, 대중음악의 역사를 매개로 본 가수 남진 이야기이다.

'대중음악'과 '남진'이라는 두 개의 서사는 상호 보완적이다. 대중음악사라는 관점에서본 아니라 남진은 호남 지역민들에게 큰 위로와 자부심의 대상이었다. 군사독재 시절 '소외와 설움의 땅'이었던 호남에 정치에선 'DJ'(김대중 전 대통령)가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다면, 남진은 대중 문화예술계에서 적잖은 기여를 했다.

목포에서 태어난 그의 본명은 김남진이

다. 부친은 목포일보 발행인이자 제5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문옥씨다. 50년대 집에 자가용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부유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예술적 소양이 남달랐던 남진은 당시 닐 세다카, 폴 앵카 등의 팝송을 즐겨 불렀다.

목포고 졸업 무렵 레스토랑에서 팝송을 부르다 당시 작곡가 한 동훈을 소개받는다. 영화배우가 되기 위해 한양대 연극영화과에 입학한 상황에서 가수 연습생과 배우 지망생을 겸하게

된다. 이후 65년 한동훈이 작곡한 첫 음반 '플레이 보이'로 데뷔를 하고 팝송영화 주연배우로도 활동한다. (69년 제12회 부일영화상 신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책에는 동아방송에 '연애0번지'가 소개된 인기를 얻었지만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권력이 금지곡으로 지정한 내용, 목포에서 상경한 어머니가 그에게 '영산강아, 말을 해다오'가 좋더라 용기를 북돋워 주던 에피소드, 어촌항도 물결로 인기를 끈 '울려고 내가 왔다' 등과 관련된 이야기가 수록돼 있다.

또한 '음악 천재' 박춘석을 만난 인연, 무대와 스크린을 동시에 장악하며 종횡무진 활동했던 기억,

제복에 반해 해병대를 지원해 이후 베트남에 파병된 일화, 그곳에서 1년을 복무하며 전우들과 전장을 지킨 일 등도 만날 수 있다.

이밖엔 책에는 '다른 듯 닮은' 남진과 나훈아의 이야기도 등장한다. 데뷔한 경로, 금지곡 판정을 받는 일 등이 유사하다. 이들은 라이벌 구도를 이루며 리시ابل들은 물론 방송에서 스크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을 벌였다. 일정 부분 부작용도 있었지만 남진은 이렇게 말한다. "나훈아 씨를 만난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어찌 보면 나훈아가 있었기에 지금의 남진이 있고, 또 남진이 있었기에 나훈아가 있는 것이죠."

전성기 이후에도 남진은 현재까지 무대에 서며 대중들과 함께하고 있다. 1999년 '동지', 2008년 '나야 나' 등을 발표했으며 2009년에는 장운정과 듀엣 '당신이 좋아'를 발표하며 인기를 끌었다.

"세상은 윤칠기삼(運七技三)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운은 또 인연이 주는 거야.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부터 떠나는 날까지 모든 게 인연이예요. (중략) 지금까지 제 인생을 만들 어준 인연을 생각하면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 인연을 덕분에 이만큼 잘 살아왔구나, 나는 참 행운 아구나, 늘 생각하죠."

<상상출판 2인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우리 대중음악의 고전'인 남진의 인생에는 한국 대중음악사 100년사가 담겨 있다.

<상상출판 제공>



비상 연락처

최현경 지음, 서나연 옮김

고등학교 학창시절을 이렇다 할 특별한 일이 없이 보낸 페니. 마음이 통하는 친구도 없었던 데다 온 좋게 남자 친구를 만들었지만 자신과는 잘 맞지 않았다. 그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 중 하나는 엄마의 철부지 같은 행동이었다. 한때는 돌도 없는 사이였지만 점차 엄마와의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다. 페니는 이런 현실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뉴욕타임즈' 영 어덜트 부문 베스트셀러이자 한국계 미국인 최현경의 데뷔작 '비상 연락처'는 성장 로맨스 소설이다. 작가는 어린 시절 홍콩에서 자랐으며 이후 미국으로 이주해 텍사스대 오스틴 캠퍼스에서 섬유, 의류를 전공했다. 현재는 뉴욕에 거주하고 있으며 '영구적 기록', '요크'를 썼다.

이번 소설은 디지털 시대 소통과 자아의 발견을 드린 작품이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매개로 사랑을 키워 가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두 인물의 이야기를 그렸다.

대학에 입학해 새로운 삶을 시작한 페니는 자신과 잘 맞는 친구를 사귀고 싶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시작은 별로 좋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페니는 샘이라는 사람을 알게 된다. 그러나 샘의 처지도 페니와 별반 다르지 않을 만큼 좋지 않다. 사랑도 돈도 가족도 미래도 모두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좋지 않았다. 영화감독의 꿈을 키워가고 있지만 영상 편집에 쓸 노트북은 망가져 통장에는 겨우 17달러가 있을 뿐이었다.

페니와 샘은 어떻게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우연히 페니가 샘을 돕고 전화 번호를 교환하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비상연락처'가 된 것이다. 부족하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의 이야기는 오늘의 젊은 청춘들의 삶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듯하다.

<책읽는수요일·1만9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녹나무의 여신

히가시노 게이고 지음, 양윤옥 옮김

장르와 세대를 아우르는 작가, 일본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로 불리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가 데뷔 35주년을 기념해 지난 2020년 전 세계 동시 출간됐던 '녹나무의 파수꾼'의 속편 '녹나무의 여신'이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 출간됐다.

500쪽이 넘는 긴 분량을 얹은 자리에서 결말까지 읽을 만큼 흡인력이 대단하다는 호평을 받았던 전편에 이어 신간 역시 추리와 판타지는 물론 따뜻한 감동까지 더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원을 들어준다는 신비한 녹나무가 있는 월향신사. 신사의 관리인인 녹나무 파수꾼 나오키 레이토는 낮에는 청소 업무를, 기쁨이 있는 밤이 되면 소원을 빌기 위해 녹나무를 찾는 사람들을 안내한다.

어느 날 신사를 찾아온 여고생이 자신들이 만든 시집을 대신 팔아 달라고 부탁하고 며칠 뒤 비 오는 밤에 기념하던 손님이 쓰러져 중무소를 급히 비우게 되는 일이 생긴다. 그리고 며칠 뒤 월향신사에 형사가 찾아오면서 절도와 강도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이야기는 결집을 수 없이 흘러간다.

전편 '녹나무의 파수꾼'에서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 절도범이 된 레이토가 월향신사 관리인으로 일하며 개과천선하는 과정을 다뤘다면, 속편 '녹나무의 여신'에서는 레이토가 여러 사건에 휘말려 우여곡절을 거듭하며 기적의 의미를 찾아가는 내용을 다룬다.

히라노 게이치로의 '일식', 무라카미 하루키의 '1Q84',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악의' 등을 번역했던 일본 문학 전문 번역가 양윤옥이 전편에 이어 번역을 맡았다.

<소미미디어·1만88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폭염 살인

제프 구델 지음, 왕수민 옮김

폭염 사망자가 50만명에 육박하는 시대에 지구는 문자 그대로 '열대화'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전례없는, 물과 폭염이 계속되면서 인류는 무더위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했다.

가시적 측면뿐 아니라 폭염은 지구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기온이 오를수록 자살 및 강간 사건이 늘어나거나 기온이 정지 결과에 영향을 주는 등, 폭염과 사회 전 분야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기후 저널리스트 제프 구델이 파키스탄부터 시카고, 남극과 파리 등을 오가며 기후 리포터주 '폭염 살인'을 펴냈다. 책은 산업혁명 이후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된 2023년을 예견했으며, 일찍이 미국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통찰력을 인정 받아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에어컨의 인기는 무더운 기후로 외면받던 미국 남부 북부 인구를 대거 이주시킬 정도였는데, 1940-1980년대 사이에 민주당 텃밭이었던 선벨트 지역에 보수 성향의 은퇴자들이 몰릴듯 몰려들며 대선 판도를 뒤엎었다."

저자는 미국 선벨트 지역에 은퇴자들이 밀려들며 대선에 영향을 끼친 것이 기후 때문이라고 언급한다. 에어컨이 없던 시절에는 은퇴자들이 비교적 시원한 미 북부에 거주했지만, 에어컨 등 문명의 이기에 힘입어 남부로 이주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후 변화는 물론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

책에 따르면 야생 동식물들은 더위를 피하고자 거주지 변화를 주고 있다. 육상 동물들은 10년마다 평균 20여 킬로미터씩 이동하고 있으며 대서양대구에서는 160킬로미터를 이동한 경우마저 관측된다. 배양속도 마찬가지로, 산호는 매년 약 32킬로미터 북상하며 더위를 피하고 있다.

<웅진지식하우스·2만3000원>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